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우려
 - ◇ (초점)-코스피 견인했던 개미, 10 개월 만에 이탈 행렬..이유는?
 - ◇ (초점)-국고채 20 년물 발행 내년까지? 30 년물 12-5 잔존만기에 주목하는 이유
 - ◇ (초점)-환율 급락에 경고 보낸 외환당국.. 어떤 메세지 보내려했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 일 별세했다. 사진은 이 회장이 2012 년 1 월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장에서 기자들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로이터/스티브 마커스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2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32.9	1.3%	2.1%	-3.5%	유로	1.1859	1.2%	5.8%	-2.3%
100엔 대비	1,077.1	0.6%	-1.4%	-4.4%	엔	104.69	0.7%	3.7%	0.9%
유로 대비	1,337.6	0.1%	-3.3%	-1.3%	위안	6.6850	0.6%	4.2%	-1.3%
위안 대비	168.62	1.1%	-1.7%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335.57	-0.9%	-0.7%	22.3%
코스피	2,360.81	0.8%	7.4%	7.7%	나스닥	11,548.28	-1.1%	28.7%	35.2%
코스닥	807.98	-3.1%	20.6%	-0.9%	S&P500	3,465.39	-0.5%	7.3%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85.03	0.8%	5.8%	15.8%
국고채 3Y	0.910%	2.2bp	-45.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91%	1.3bp	-28.9bp	-40.4bp	미국채 2Y	0.155%	0.8bp	-140.6bp	-93.7bp
국고채10Y	1.495%	0.2bp	-18.8bp	-26.5bp	미국채 10Y	0.841%	9.2bp	-106.9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39.85	-2.5%	-34.7%	34.5%	한국 5Y	24.1bp	-0.7bp	3.0bp	-17.0bp
금(현물)	1,900.79	0.1%	25.3%	18.3%	일본 5Y	16.6bp	0.7bp	-1.1bp	-4.0bp
TR상품지수	2,614.10	2.9%	5.1%	4.8%	중국 5Y	36.5bp	-1.4bp	5.8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0월 26일(월)>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27일(화)>

- 한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 금융회의(08:00)
- 금감원,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12:00)

<28일(수)>

- 한은, 10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잠정)(07:30)
- 한은, 3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29일(목)>

- 한은,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30일(금)>

- 통계청, 9월 산업활동동향(08:00)
- 국민연금, 제 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외환 관리체계 개선안, 노후연금 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 의결 등)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0월 26일(월)>

- 미국, 9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9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9월 신규주택 판매 (23:00)
- 호주, 홍콩 휴장

<27일(화)>

- 중국, 9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9월 총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8:00)
- 미국, 9월 내구재주문 (21:30)
- 미국, 8월 주택가격 ·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10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28일(수)>

-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29일)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도매 · 소매재고 (21:30)
- 캐나다, 캐나다는은행 금리 발표 (23:00)

<29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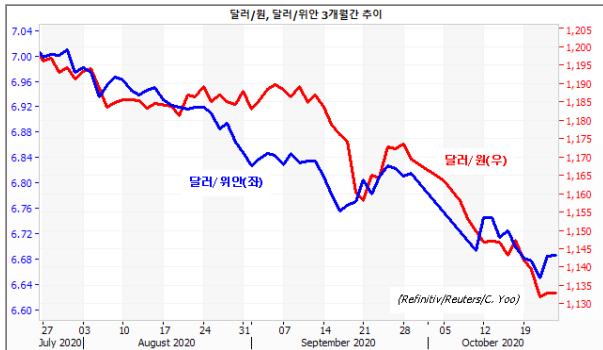
- 일본, 9월 소매판매 (08:50)
- 일본, BOJ 금리 발표
- 유로존, 10월 기업환경지수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19:00)
- 미국, 3분기 GDP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월 잠정주택판매 지수 (23:00)
- 유로존, ECB 통화정책 회의 및 금리 발표
- 유로존, ECB 정책이사회 후 기자회견 (21:30)

<30일(금)>

- 일본, 10월 도쿄 CPI (08:30)
- 일본, 9월 실업률 (08:30)
- 일본, 9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유로존, 10월 CPI (19:00)
- 유로존, 3분기 GDP 잠정치 (19:00)
- 유로존, 9월 실업률 (19:00)
- 미국, 9월 개인소득 · 근원 PCE 가격지수 (21:30)
- 미국, 3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10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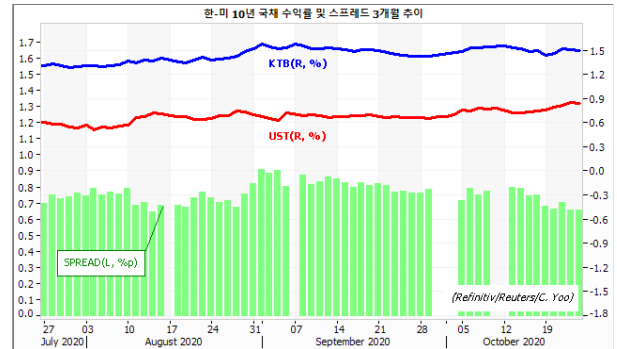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달 들어 추락 중인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저점 찾기 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20-1140 원이다.
- 이달 초반 하더라도 1170 원 근처에 있었던 환율은 1120 원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지난 주말 역외거래에서 환율은 1130 원대를 함없이 하향 이탈해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 지지선으로 지목하는 1120 원대로 내려섰다.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 당선에 기댄 달러 약세와 중국의 쌍순환 정책과 대외 개방,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등에 힘입은 위안화 강세에 원화는 강력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서 한발 비켜선 한국 경제의 상대적인 차별성도 원화 강세를 거두고 있다.
- 다만 이같은 흐름을 외환 당국이 불편해하고 있고 이에 시장 참가자들은 이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심리와 역내외 수급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해 있는 상황에서 달러/원의 독자적인 조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 미국 대선을 앞둔 글로벌 달러 흐름과 위안화 움직임을 살피는 가운데 이들의 기존 추세가 지속된다면 달러/원은 하락 시도를 이어갈 전망이다.
- 이번 주에는 국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3분기 GDP 잠정치 발표되고, 아울러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3분기 국내 GDP는 전기비 1.7%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1.9% 수축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글로벌 금리 동향과 주중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반영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내 시장 참가자들의 두려움은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바이든 후보의 대규모 재정 부양 의지와 증세 공약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지만 대선 직후에 시장이 그 모든 변수를 반영하며 급등락하지는 않으리라는 진단이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이다.
- 다만 미국 대선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미국 대선 결과와 코로나 19 재확산, 백신 관련 발표 등 변동성 재료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달러/원 환율에 대한 채권시장의 민감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1127 원대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가파르다.
- 이번 주 예정된 중국의 5 중전회에서 중국 당국의 내수 강조 스탠스가 확인될 경우 원화 강세 동력이 더해질 수 있다.
- 주중에는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선다. 지난달처럼 수요일 발표, 목요일 입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대상 종목일 것이다. 다만 당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지표종목 포함 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역대 최악 수준인 -3.2%(전분기비)를 기록했던 만큼 3분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다.

(칼럼)-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우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 -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르는 그의 경제발전사 연구에서 "신생아의 향후 생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그가 태어난 지역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20 세기 후반 서유럽과 북미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은 행운아였다. 반면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의 중국의 가파른 소득 증가는 이런 상대적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소득, 소비 그리고 힘의 균형 변화는 서유럽, 북미지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쇠퇴'라는 느낌을 안겨주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생겨났다.

19 세기 후반에서 20 세기 초 사이 영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해가는 국력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가진 바 있다.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진입한 국가였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잇따라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영국은 초기의 우위를 지키지 못했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복구할 전략을 찾는 데 집착해야 했다.

영국의 실질소득과 소비는 1950년대와 60년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더 높은 성장에 집착했다.

영국이 그러했듯이 초반 우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또다른 경제사학자 데이비드 에저튼은 "영국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노동자와 기업을 그리고 엔지니어를 가졌었다고 해도 상대적인 국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은 국력 쇠퇴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착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영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1인당 GNI는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56% 증가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960%가 증가했다. 베이스가 훨씬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달러로 변환했을 때 1990년 미국의 GNI는 중국의 70배였다. 물가수준을 고려해 조정하더라도 차이는 거의 25배였다.

하지만 2019년 미국의 1인당 GNI는 중국보다 6배 높은 수준에 그쳤다.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4배 정도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을 어지럽혔다. 이는 중국이 매우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고 주요 경제권 중에서 상대적 소득이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멕시코 그리고 브라질의 소득은 지난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들 사이의 힘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중국과 인도는 주요 경제 중 1990년 이후 상대 소득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증가한 유일한 국가들이다.

이런 급격한 상대 소득의 성장은 196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이 급격히 성장할 때 만들어진 것과 같은 긴장감을 조성했다.

1980년대까지 미국과 유럽지역의 동맹국들은 일본이 제조업, 국제무역, 고급기술 그리고 해외투자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했었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중국의 경제는 일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며 정치·경제적 긴장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체결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들 사이의 경제 경쟁 심화는 양측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들은 자연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급진적인 혁신을 수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요한 혁신들은 승자와 함께 패자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잠정적인 패자들은 종종 국가에 혁신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정치적 경쟁은 혁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모키르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부터 일본 메이지유신 그리고 구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선도적인 기술을 갖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현존하는 패권국가와 잠재적 패권국가 존재할 때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이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지난 100년 동안 영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서구권 국가들을 추격한다면 경쟁과 긴장은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은 경쟁이 건설적이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초점】코스피 견인했던 개미, 10개월 만에 이탈 행렬..이유는?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도 국내 주식시장을 굳건하게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 물량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9월까지 9개월 연속 주식을 순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22일 기준) 약 1조원을 팔아치워 10개월 만의 순매도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온 코스피는 이러한 개인들의 변심 탓에 상승동력이 둔화된 모양새다.

월간 코스피 증가율(22일 기준)은 +1.2%로 미국 나스닥지수(+2.8%)와 MSCI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5.3%)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 개인들의 변심, 왜?

이달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마지막으로 대어급 기업공개(IPO)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개인들의 투자 열기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난 7월 SK바이오팜, 9월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10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까지 IPO 공모주 투자 광풍이 불면서 개인들의 투자 열풍도 뜨거웠다.

이들 기업공개에 몰린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주 청약 증거금 납입액은 카카오게임즈(58조 6천억원), 빅히트엔터테인먼트(58조 4천억원), SK바이오팜(31조원) 등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장 이후 지지부진하자 개인들의 주식 투자 활기도 함께 꺾였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2일 기준 상장 이래 최고 증가 대비 각각 약 25%, 43%, 30% 하락했다.

나정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의 주가가 상장 이후 저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IPO 기대감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약해지고 수급상 주도하는 주체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많은 양도소득세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고 이에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책에 따른 반발 매물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장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강화됐던 2013년, 2016년, 2018년, 2020년 사례를 보면 12월 중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평균 3.1 조원을 순매도했고, 그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최대 210%까지 증가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주주 기준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2010년 이후 총 5 차례가 변경되었고,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강화됐다"면서 "개인 수급이 악화 요인으로 양도소득세 이슈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는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 개인 연말 매도 물량이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인 주도 코스피 랠리 어렵나

시장전문가들은 지난 3월 폭락을 딛고 지속된 코스피 랠리가 전례 없는 유동성에 따른 이례적 현상이었던 만큼 이같은 개인 주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지만, 추세적인 개인들의 증시 이탈을 우려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월 연속 이어진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최장이었고,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45.4 조원)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 2018년 (연간 7 조원)에 비해 약 6.5 배에 달한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결국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추세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본격적인 증시 탈출 장세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초점)-국고채 20년물 발행 내년까지(?)..30년물 12-5 잔존만기에 주목하는 이유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고채 20년물이 기획재정부의 발행 라인업에서 사라지게 될까?

기재부가 수급요건을 고려해 국고채 20년물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20년물 발행의 존폐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감소한다는 점, 2022년부터는 30년 비지표물을 통해 수익률곡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년물 발행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채 20년물 공급 축소 예고, 사실상 퇴장 시그널(?)

기재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에서 초장기물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20년물 물량을 탄력 조정하고, 필요시 20년물 경과물과 30년물 지표물 교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국채발행 증가로 시장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요 기반이 탄탄한 30년물의 발행 확대와 2년물 발행물량 등의 탄력적 조절을 통해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국채시장에서 20년물의 비중 축소는 비단 최근에 부각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량 중 20년물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만큼 현재 전체 국고채 발행잔량 중 20년물 비중은 19% 수준이지만, 지난 수년간 20년물의 공급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장기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20년물 발행 비중의 추가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데다, 20년물의 30년물 교환까지 이뤄질 경우 발행잔액도 감소하게 된다.

물가채 등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공급물량의 축소는 그만큼의 수요 축소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감소는 그만큼의 유동성 디스카운트 요인이 돼 시장의 수요를 줄이고 줄어든 수요는 다시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가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서 국고

채 20년물의 존재감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분석이다.

A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지금도 7%에 불과한 20년물의 발행 비중을 더 줄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장시킨다는 의미"라며 "공급자 위주 초장기물 시장의 경우 발행이 많이 될수록 존재가치가 커진다는 점에서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20년물의 미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이면 30년 비지표 잔존만기 20년..기재부 "예단 말라"

국고채 발행 종목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인식도 시장참가자들이 20년물의 발행 중단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매월 첫째 주에 30년물 입찰을 진행하고 둘째 주에 3년물과 2년물 입찰, 셋째 주에 10년물 입찰, 넷째 주에 5년물과 20년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안채 발행까지 감안할 때 채권 입찰이 한 달 거래일 중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시장참가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2년부터 국고채 30년물 12-5의 잔존만기가 처음으로 20년이 된다는 데 주목하는 시장참가자들도 있다. 현재 20년물의 존재가치가 시장 수급을 반영한 적정 수익률곡선을 발견하는 데 상당 부분 있는 만큼 30년물 비지표물 금리가 20년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B 증권사 채권딜러는 "2022년이 되면 잔존만기가 20년이 되는 30년물 경과물이 하나씩 돌아오면서 비지표물 수익률곡선이 만들어진다"며 "기재부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채 2년물이 나오고 50년물 발행도 활성화되면 초장기 종목이 너무 많아진다"며 "통안채 입찰에 교환에 바이백 입찰까지 신경쓸 게 워낙 많다 보니 발행 종목을 줄일 필요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현 시점에 국고채 20년물의 발행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20년물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로 이번 발표를 한 것이라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연물별로 분산해 발행을 해야 하는데 연물을 없애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곡선도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지표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다른 종목 금리를 끌어와서 완성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고채 라인업의 조화로운 구성이 중요한데 현재 시장에서 단순히 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것만 가지고 특정 연물을 없애는 것은 선부른 판단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초점】환율 급락에 경고 보낸 외환당국..어떤 메시지가 보내려했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최근 달러/원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해 외환당국은 22일 시장에 모처럼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이달 들어 달러/원 환율은 약 3% 급락해 19개월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예상보다 빨랐던 환율 하락에도 추가 하락 기대가 더욱 확산됐고, 시장 내부에서는 빅피겨인 1100 원대도 거론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환당국은 환율 속도조절을 위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구두개입성 발언과 함께 실매수 개입을 통해 시장에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 당국 구두개입 + 추정되는 실개입

이번달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됐고, 이에 일각에서는 당국의 미세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추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환율이 별다른 조정없이 일방적으로 하락하자 이날 당국은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율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쏠리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 이후 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수세에 환율은 약 4원 상승했다.

외환당국은 최근 국내 펀더멘털이나 수급상 특별한 변화 없이 원화가 일방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추종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체적으로 국내 외환수급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서 "위안화에 (원화가) 동조 강세를 보이며 여러가지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우려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양국의 경제 회복 전망은 두 통화 강세를 견인 중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내수 부양 정책과 외인 자본 유치 필요성을 토대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고 실제로 외국인 자본 유입도 적극 이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위안화 채권 투자자금은 올해 1-9월중 1082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58억 달러와 작년 총 유입 금액 658억달러를 크게 웃돈다고 분석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월평균 181억달러가 유입됐다고 국제금융센터는 밝혔다.

다만 원화의 경우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다.

9월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투자는 9개월 만에 첫 감소 전환했고, 상장주식은 약 2.5조원을 팔아치워 두달 연속 순매도했다. 물론 10월 들어서 국내 주식에 대한 외인 순매수 규모는 약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최근 한국 수출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무역흑자도 회복 중이지만 9-10월의 계절적인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 당국 경고에도 원화 강세 기조는 유효

일단 외환당국의 경고로 달러/원 환율은 일단 1130 원대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듯 하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오늘 외환당국이 보다 강하게 시장에 나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은 몰라도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달러 약세와 중국 위안화 강세 기조에 달러/원의 방향 전환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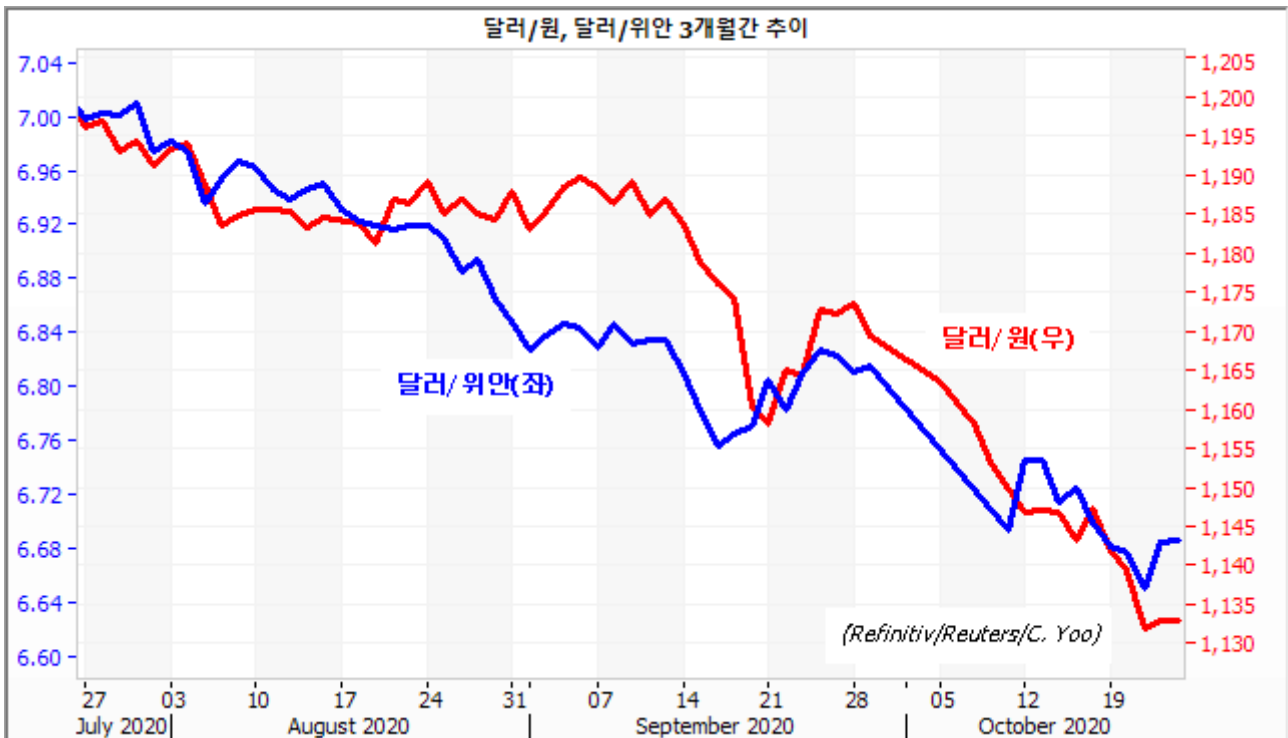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그간 리스크를 인식하면서 달러를 보유하려했던 심리가 크게 완화된 가운데 무엇보다 중국의 단독적인 경제 회복 기대와 이에 위안화 강세가 진행되는 한 원화도 이같은 흐름을 계속 따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시작하는 14차 5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이 쌍순환 정책임을 고려할 때 환율 정책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달러/위안이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6.28 위안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어 달러/원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망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